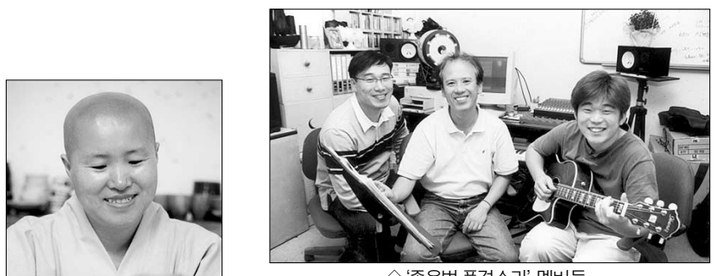
현장을 뛰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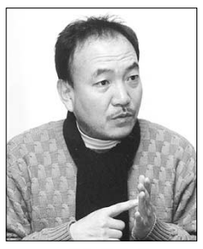
'과거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불교계의 문화포교는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자신의 예술 분야에 불교를 접목해 문화포교에 앞장서려는 노력과 열정으로 가득한 이들이 있어 문화포교의 미래는 밝다. 그들의 땀과 눈물이 곧 '포교'의 작은 씨앗이 되어 이제 조금씩 싹을 틔워가고 있다. '문화 포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불교문화의 활성화를 모색해본다.

땀과 열정으로 씨 뿌리고 싹 틔운다


◇'좋은벗 풍경소리' 멤버들.

◇선재 스님

◇정율 스님


◇주경중 감독

◇강형진 단장

◇손재현 교수

◇이기향 교수

◇오거서 불경만화기획팀.

사찰음식 대중화의 선구자

선재 스님 사찰음식의 연구와 대중화에 선구적 역할을 해 온 사람이 바로 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선재 스님이다. 스님은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해 음식을 연구하는 것도 또 하나의 수행'이라는 생각에서 사찰음식을 20여년간 연구해왔다. 1995년 불교TV '푸른 맛 푸른 요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음식을 선보인 이후 사찰음식은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스님은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2000년)이라는 사찰요리책을 펴냈고, 몇 차례의 전시회도 열었다. 또한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을 열어 후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동국대 가정교육학과 대학원 겸임교수로 사찰음식의 의학적 · 철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선재 스님은 "요즘같이 인스턴트 음식이 넘쳐나는 세상에 사찰음식을 알리고, 또 건강을 위해 많이 애용할 것을 권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사찰음식에 담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음성 공양 … 산사음악회 섭외 1순위

정율 스님 찬불가로 불음을 전하는 '음성 포교사' 정율 스님. 스님은 요즘 붐을 이루고 있는 산사음악회의 '섭외 1순위'로, 천안과 광주, 진주 등 전국의 산사에서 일반인들에게 찬불가의 장엄미를 전하고 있다. 또한 격주에 한 번씩 불교 TV에서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찬불가 교실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문사 승가대학과 대구 동명사 등에서도 불교음악 특강을 열고 있다. 찬불가를 접할 기회가 적은 일반인에게는 친숙함을, 매일 부르면서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사에 담긴 뜻을 모르는 불자들에게 찬불가가 갖는 '참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산사음악회에서 처음 찬불가를 접하고 제 홈페이지(http://jungyul.or.kr)에 '너무 좋았다', '다시 듣고 싶다'는 글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찬불가를 널리 알리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전 만화로 '사각지대' 타개

오거서 불경만화 연구팀 지난 8월 <만화로 보는 부모은중경>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불경만화'를 펴낸 도서출판 오거서(대표 공세동). 이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직 '출판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어린이 불서 시장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에서 이름을 딴 '오거서'는 4년간 30여 권의 어린이 불경만화를 출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첫 결과물이 '오거서 불경만화 기획연구팀'이 글과 구성을 맡은 <만화로 보는 부모은중경>이다. 김경윤 소설가와 윤정선 구성작가가 스토리를 맡고, '봉이 김선달'의 작가 이만수 씨와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의 함중하 씨 등 70년대를 풍미한 만화가들이 그림을 맡고 있다.

제작비는 일반 책의 2~3배가 들지만 수익성이 거의 없는 불교만화시장에 '어린이를 위한 제대로 된 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 하나 만으로 뛰어든 것은 무모하다시피 한 일이었다. 그러나 첫 결과물이 나온 지금, 불경만화 연구팀의 노력에 비해 판매는 여전히 부진하다. 이대로는 '기본 제작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마음을 다잡는다.

8년동안 찬불동요 창작 한길

좋은벗 풍경소리 올 겨울에 선보일 17집 녹음 작업이 한창인 서울 조계사 근처 사무실에서 만난 '좋은 벗 풍경소리'의 이종만(45) · 정유탁(31) · 권현수(30)씨. 이들은 1994년, 찬불동요의 창작과 보급이라는 원력을 세우고 '좋은 벗 풍경소리'를 설립했다. 기존의 찬불동요를 정리하고, 새로운 곡을 만들고, 이를 음반과 악보집으로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8년의 세월은 7번이나 짐을 싸고 다시 푸는 험난함의 연속이었다. 8년이 지난 지금, 풍경소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천여 명의 회원이 힘을 실어주고 있고, 후원회원도 300명에 이른다. 1년에 3장 정기적으로 발매하는 찬불동요집과 지금껏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발행해 온 소식지도 이들의 자랑이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동요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오선지와 씨름하는 이들에게서 잔잔한 법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동승' 해외 10개 영화제서 수상

주경중 감독 지난 4월 '달마야 놀자' 이후 불교 소재 영화는 거의 흥행 참패를 면하지 못했는데 개봉 3일 만에 13만 5천 명의 전국 관객 동원, 60%를 육박하는 좌석 점유율이라는 믿기 어려운 성과를 올린 영화가 있었다. 제목은 '동승'. 더욱이 국내 개봉 이전부터 상하이 영화제 각본상, 시카고 영화제 관객상, 프랑스 아노네 영화제 관객상, 티뷰론 영화제 최우수 가족영화상 등 10여개의 해외 영화제 수상에 이어 20여개 영화제에 초청되는 진기록을 낳았다. 이런 영광의 한 가운데는 7년여 동안 고통스런 촬영과 시나리오 작업을 해 온 주경중 감독(44)이 있었다.

주 감독의 다음 작품 제목은 '테일러 양복점'. 시나리오 작업중이라 내용 소개는 시기상조라고 한다. 또 11월에 열리는 제13회 인도국제영화제 아시아 파노라마 부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준비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 스님들에게 귀동냥으로 얻은 지식으로 3~4년 후 다시 한번 불교 영화에 도전할 겁니다. 그 땐 정말 잘 만들어 볼게요."

서울시서 전문예술단체 선정

강형진 단장 국내 최정상인 KBS교향악단의 잘 나가던 단원이라는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불교와 서양 음악을 접목시켜 보겠다는 뚝심 하나로 버텨온 강형진 니르바나 실내악단 단장(49).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강 단장은 지난해 행원문화상 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로 창립 5년째를 맞는 니르바나불교실내악단은 지난 2월 불교연주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창단 후부터 월 2회 이상씩 꾸준한 연주회를 열고 있는 강 단장은 지난 10월 11일에도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소아암 환자돕기 자선 연주회를 가졌다. 또 11월 4일에는 경기도 안산시 불교음악제에 초청연주를 할 예정이다. 연주 활동 틈틈이 1년에 한번씩 해인사 백련암에 가서 7일 동안 매일 3천배를 올리기도 하는 강 단장은 "재정 사정상 단원들 대부분이 객원으로 연주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포교 연주를 위해서 상임 단원들을 구성해 한달에 최소한 10회 이상의 연주 기회를 갖는게 큰 꿈"이라고 말한다.

'넋의 소리' 등 창작불교발레 개척

손재현 교수 전통 발레에 불교문화를 접목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포교 무용가 손재현 교수(43). 99년 봉덕사 성덕대왕 신종(일명 에밀레종)의 주조 과정에 녹아 있는 불심을 주제로 한 불교무용극 '넋의 소리'를 시작으로 '사천왕', '연화'까지 해마다 창작 불교발레를 한 편씩 무대에 올리고 있다.

특히 손재현 무용단 창단 공연 작품이었던 '넋의 소리'는 신체언어인 서양 발레에 대사를 삽입한 교계 최초의 무용극이다.

이런 손 교수의 원력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이어졌다. 2000년에는 이스라엘과 네델란드에서 춤사위를 흩날렸다. 특히 이스라엘 단일 행사로는 세계 최대 무용페스티벌인 '카미엘 국제 댄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약 20만명의 관객 앞에서 총 5회에 걸쳐 공연하기도 했다. 또 올해 8월에는 벨기에 나무르에서 열린 '잠비스 국제민속축제'에 초청되기도 했다.

손 교수는 10월 23 · 24일 양일간 서울 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대만 카오슝시 발레단과 함께 '연화(蓮花)'를 공연한다.

화엄사상 녹인 의상전 '눈길'

이기향 교수 '옷들이 전시회에서 움직인다.' 얼핏 들으면 SF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얘기지만 지난 9월 5일부터 16일까지 광화문 갤러리에서 열렸던 이기향 교수(48)의 의상전시회 제목이다. 모든 주제는 '화(華)'다. <화엄경>에서 따온 것이다.

<법화경>을 주제로 한 의상 전시 이후 4년만에 완성한 30여점의 의상들을 무용과 음악을 곁들여 선보였다.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일종의 의상극 형식이다. 이렇듯 이 교수의 의상 전시회는 항상 불교와 관계가 있다. 2000년에는 '법화경'을 테마로 한 의상 작품 '영취산의 환희'로 해외예술계까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고급패션 전문잡지 <어너먼트(Ornament)>는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는 보기 드물게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정신적인 깊이가 한데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주일 ·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창간 9주년
1994~2003
buddhanews.com

(2003년 가을 - 겨울, 중국 / 제주도 편)
고품격 성지순례! 실속 있는 가격!
삼보에 귀의하옵고
판매가외 일체의 추가경비가 없습니다 !
(비자요금 No! 팁 No! 옵션 No)
기존의 여행과는 차별화 된 서비스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10/26 - 제주/마라도 3일 21만원
◇11/ 2 - 상해/항주/보타산/낙가산 69만원
중국 제1불교왕국관세음보살도량 75만원
- 상해 / 항주 / 보타산 / 낙가산 5일
신라김교각 스님의 지장왕도량 79 만원
- 남경 / 구화산 / 황산 / 항주 / 소주 5일
구름의 불산,보현보살 도량 - 79만원
- 아미산 / 낙산대불 / 대족석각 5일
문수보살도량 - 69 만원
- 북경 / 만리장성 / 오대산 / 운강석굴
제주 우도 / 마라도 / 제주 3일 - 27 만원
※ 자유여행을 원하시는 분을 위한 할인항공권 및 호텔수배 도 해드립니다.
(주)행복만선 대표전화 02)720-8490

육임강의 · 육임활용서 안 내
활용서
■ 육임래정비법 350,000
■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2,500,000
■ 上 휴대용 (10일치씩 6권) 310,000
■ 육임강의록 (上권 학습용 · 下권 활용서) 410,000
■ 육임 비디오 · CD 900,000
■ 육임신수비결(비디오 1개 포함) 300,000
■ 출생 일시 운명 예언 비법 74,000
(태아(胎兒) 길일 길시 선택 분만 선정 · 택일)
(입금 다음날 수취됨)
강 의 (전지역 효사선생 직강)
● 매주 일요일 전주 저녁 6시 063-284-7714
● 매주 월요일 광주 오후 3시 062-224-8680
● 매주 화요일 진주 오후 6시 055-755-1644
● 매주 수요일 부산 오후 6시 051-762-0141
● 매주 목요일 대구 오후 6시 053-642-8680
● 매주 금요일 서울 오후 5시 02-993-8680
● 매주 토요일 강남 오후 6시 02-996-3335
문의 02-993-8680
입금처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門
● 치열한 이 시대의 예민한 물음들에 대해서는 육임에 나타난 대답이 가장 신임할 수 있습니다. - 효 사 -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신비의 황금보물 명당육氣방 051)865-9933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으로 변합니다.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